

해남군 수산종자 방류 4배 소득 거뒀다

2015년 3억8000만원 들여 올해 15억8000만원 수확

꼬막·해삼·전복·바지락 등 정착성 품종 방류 효과 커

해남군이 어린 꼬막·해삼·바지락 등을 뿌려 사업비의 3~4배 이상 수산자원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남군이 분석한 수산종자 방류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자 방류 사업비 3억8000만원을 들여 꼬막·바지락·해삼 등 10종의 종자를 5~6월에 뿌려 2년 뒤인 올해 수확한 결과, 15억8800만원을 소득을

올렸다. 4.1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해남군은 최근 3년간 12억8300만원을 투입해 꼬막·바지락·전복 등 패류 112과 대하·보리새우·꽃게·해삼·자라 등 어류 1221만7000마리를 어촌계 해역 및 저수지 70곳에 방류했다. 모두 자연산이 서식하는 지역에 방류해 소득액이 자연산 생산량을 포함한 것이지

만, 어업인들은 소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꼬막과 해삼은 이동하지 않고 여름 잠을 자지 않아 성장 속도가 빨라 2년가량 성장하면(120g) 판매할 수 있어 방류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꼬막의 경우 2015년 1억2700만원을 들여 17t의 종패를 뿌려 2년 뒤인 올해 26t을 생산, 4억1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해삼은 2년전에 사업비 4500만원어치를 방류해 올해 1억8600만원어치를 수확, 4.1배의 효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바지락은 3500만원, 전복은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각각 2억1200만원과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어업인들은 꼬막·바지락·전복·해삼 등 방류효과가 확실한 정착성 품종을 선호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방류 효과 조사가 어업인들의 구슬에 의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어업인들은 종자 방류가 수산자원 조성 및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



하우스에서 부추를 수확하고 있는 농민들. <해남군 제공>

해남군 특화작목 겨울 부추 본격 출하

향기·당도 높아 소비자 선호

해남군이 권역별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겨울 부추를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소비자들도 식탁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 부추는 연중 수확이 가능하지만 해남 겨울부추는 고품질 유지를 위해 겨울철에만 수확,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출하하고 있다. 해남 겨울부추는 하우스에서 재배되는데 잎이 넓어 쉽게 물러지지 않고 향기가 좋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올해는 식자재 유통기업인 CJ프

레시웨이가 계약을 체결, 만두소용으로 매달 25~28t 가량을 출하할 계획이다. 해남지역에서는 북일면을 중심으로 22농가(20ha)가 시설부추를 재배, 연간 36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부추는 한번 파종하면 3~4년 연속 재배가 가능한데, 겨울철을 기준으로 40일이면 재수확할 수 있어 연간 4~5차례의 겨울 부추 수확이 이뤄진다. 해남군은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동집하·선별장을 조성해 시설부추 연중생산 체계를 구축,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 김정보리로 만든 음료 출시

하이트진로음료·전남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

해남 김정보리<사진>로 만든 음료를 도심에서도 쉽게 마실 수 있게 된다. 해남군은 12일 서울 르메르디앙호텔에서 <하이트진로음료, 전남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성 김정보리를 이용한 차음료 개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신제품 발표회도 병행해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남군은 매년 200t 이상의 김정보리 원료를 업체에 납품하고 하이트진로음료는 해남산 김정보리음료 개발과 김정보리 세계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국내 최초로 100% 국내산 김정보리를 사용한 무색소, 무설탕, 무카페인 음료 출시, 프리미엄 소비시장을 공략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김정보리의 품종 개발과 종자 생산 공급, 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해남군은 또 김정보리 자체 재종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재배농가 지원 및 재배단지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 관광프로그램도 개발, 선보이는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도 추진해 나간다는



게 해남군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도 해남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고객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한편, 해남군은 흡수정 찰보리 품종인 김정보리의 순도유지를 위해 우량종자 생산단지(30ha)를 조성, 운영중이며 올해 김정보리 400여t을 생산했다. 김정보리는 일반 보리에 비해 향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4배 이상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도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해남군 땅끝마을

해넘이·해맞이 취소

해남군은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일 땅끝마을에서 열기로 했던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취소했다. AI 유입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남군은 일출 장소로 알려져 최근 관광객이 늘고 있는 북일면 오소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남군은 또 이달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설, 대보름 행사와 당산제 등 마을 전통 행사도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완도군도 내년 1월 1일 완도읍 다도해 일출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청정 완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 사회단체·기업인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행렬

9년만에 104억원 넘어서

정기후원자만 1485명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을 내놓는 진도지역 기업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기업인 마이크로맥스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진도군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내놓은 것을 비롯해 진도개 경주단 100만원, 미래컴퓨터 하성태 대표 100만원 등 지역사회와 기업인들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도 200만원을 전달했고 (유)현도산립 500만원, 진도군 의용소방대연합회도 인재를 키우는데 써달라며 100만원의 장학금을 내놓았다. 이외 재부산향우회 회원들 100만원, 재제주향우회 회원 100만원, 봉사단체 신의회 회원 100만원, 재경진도군향우회 300만원 등도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근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써달라며 장학금을 내놓은 지역기업인들. 진도군은 인재양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인재육성장학금 후원자 1만명을 모집중이다. <진도군 제공>

진도 인재육성장학금은 지난 2008년 10월 2억원을 종자돈으로 해 현재 104억 4531만원이 조성된 상태로 오는 2020년까지 후원회원 1만명을 목표로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파악된 정기후원자만 1485명에 이른다.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뜻에 맞게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금까지 1666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18억 333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자연그대로미(米)’ 판매전략 추진

郡, 포장지 디자인 개발·대도시 특산품 판촉 나서

완도군이 완도산 도심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 ‘완도자연그대로미(米)’ 판매 전략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완도 자연그대로 미(米)’는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따뜻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포장지를 제작했다. 또 220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175ha에서 850t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완도군은 그동안 ‘햇살로 가는 여정(旅情)’, ‘해풍포옹’, ‘장보고의 보물’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으로 완도산 쌀 판매에 나섰지만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군은 이에따라 완도농협과 대도시 특산품 판매, 보틀라이스 형태의 포장지 개발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재배 품종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미품’ 품종으로 전환, 재배하고 있다. ‘미품’ 품종은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등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친환경 완도 쌀의 우수성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이 소비 촉진을 벌이고 있는 ‘완도 자연그대로 미(米)’. ‘완도 자연그대로 미(米)’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다. <완도군 제공>

투자가치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협의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 협의

거문도,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25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